

신나게 놀자! 함께 어울리자! 새롭게 생각하자!



꿈꾸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제45회 '장애인의 날' 안내-

담당 : 유아특수
(☎ 031-364-260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유아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은 친구와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상생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유아들이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개인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의 날'이란?

💡 '장애인의 날' 지정 이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날'의 유래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4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2. 배곧새봄유치원의 장애이해교육주간

♥ 기간: 2025. 4. 14. (월) ~ 4. 18. (금)

♥ 주제: 꿈꾸는 우리

모든 유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이해교육 영상 「꿈꾸는 우리」를 시청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을 꿈꾸는
하린

농구선수를 꿈꾸는
예서



소방관을 꿈꾸는
준우

파티쉐를 꿈꾸는
민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는 유아, 발달장애 유아, 비장애 유아 모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며 멋진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유아들은 자신이 가진 특별함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성장해나갑니다.
「꿈꾸는 우리」 영상과 관련된 사후 활동지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장애이해교육은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의 가치를 이해하는
첫걸음!



우리 배곧새봄유치원의 유아들이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의 꿈을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해주세요 ♥♥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맞습니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 주변에서 보던 장애인 상징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까요?

부자연스럽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표시는 1968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용 리프트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상징을 잘 살펴보면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팔과 다리는 로봇처럼 굳어있고, 손은 부자연스럽게 뻗어 있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움직일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런과 브라이언 글렌니는 기존의 장애인 상징에 대해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장애인 상징을 제안합니다.

역동적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적인 사람



그들이 제안한 장애인 상징은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세상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상징의 각 부분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1. 머리의 위치: 앞으로 숙어져 있는 머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2. 팔의 각도: 뒤를 향해 있는 팔은 마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 휠체어: 흰색 사선이 바뀌어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성을 느껴지게 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은 '엑세서블 아이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 결과 2014년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장애인 상징을 변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한 세상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함께 합니다

2025. 04. 18.

배곧새봄유치원장